

날짜: 5785 년, 여섯째 달 24 일 (9 월 18 일, 2025)

토라 문: 니짜빔

주제: 계승적 성장

여호와와 토라는 최상의 정밀도로 신성하시며 완전하신 지혜이기에, 때로는 숨겨진 형태로 함축된 뜻이 모든 304,805 토라의 성언 글자와 포기된 각 일점 일획에도 담겨져 있음을 배웁니다. 이로 인하여, 창조주 여호와와의 뜻인 토라 (가르침)는 각 글자 하나 하나는, 여호와께로 부터 근거하는 강렬하고 압축된 케두샤 (קדושה; 거룩함)의 불꽃이 기저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글자들로 함축되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와 토라가 표명하는 직접적인 뜻에만 국한 하지 않고, 그 말씀의 내면에 기저한 심오한 뜻을 알고자 할 때에는 더욱이 진중하고 정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옛 길 선한 길, 진리의 도를 걸으셨던 믿음과 순종의 선진들의 구전 기록들을 꼼꼼히 정검할때에, 우리는 더 깊은 한층의 명료한 이해력을 받습니다. 토라 배경을 알려주는 구전된 역사적 기록을 통한 설명들은, 토라 말씀 가운데 깊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지적 세계 가운데 확립시키게 하는 명백한 불씨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와 토라 말씀을 바탕으로 비교 접근하는 분별의 영은 내재한 불씨를 심장에 햇불로 피워 오르게 하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성숙시키는 영적 자양분이 됩니다.

미드라쉬에 지혜자와 우매한자 둘이 토라 전체를 통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나누는 한 예를 기록합니다: 지혜자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매한자는 시간적으로 토라의 모든 뜻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미드라쉬는 이 논쟁의 특이점을 먼저 밝힙니다. 토라를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마치 사람이 투입하는 시간이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드라쉬는 여호와와 뜻, 생명 빛인 토라를 섭렵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를 묻기 이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얼마큼 성심껏 토라 말씀을 공부하는 데 집중적인 시간을 할애할수 있는가를 우선 주목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토라의 모든 말씀을 통달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사람에게 내재한 집중성의 유무의 판단입니다. 매 순간에 모으는 집중력은 기하학적인 원리를 초월하며 각각 투입된 노력에 계승적으로 더해지기에,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드라쉬는 좀 더 심오한 비유로써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매달려 있는 빵 한 덩어리의 이야기로 그 초점을 돌려 맞춥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둘 모두가, 빵에 손만으로는 닿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단지 둘의 차이점은 현재에 직면한 물리적인 한계를 넘는 각각의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사다리나 막대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서라도 목표물, 곧 빵을 취하려는 해결책을 고안하는 반면, 우매한 자는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이 비유의 한 예문에는 여호와와 토라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폭 넓은 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는 타고난 능력만이 아니라 그가 성장 발달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기꺼이 찾아 공정한 의 가운데 최적절하게 활용하며 창조주의 뜻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의 불씨는 온 도시들의

어두움을 넉넉히 밝히는 햇불로 승화됩니다. 이 예문에는 한 층의 넓고 깊고 높은 곳까지 빛을 발하기 위한 배움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체득력은 더욱 효율적이고 포괄적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호와와 토라 공부에 10년을 집중해 바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매년 균등한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년 10분의 1씩 진전 될 것으로 예측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초기 단계에서는, 말씀 이해의 습득력이 느린 것 같고 어렵다고 생각되며 진전된 모습이 거의 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토라 말씀과 연합되는 이해의 영, 그 능력은 그 한 영혼이 바라는 정성과 노력에 정비례하며 그 이해력의 속도가 연이어 팩토리얼(n!)로 붙게 됩니다. 성심껏 쌓는 정도에 따라서, 정밀도가 높은 예언적 말씀에도, 이해하는 능력이 계승적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을 깨닫는 데에 있어서, 몇 달씩 몇 년 씩 걸렸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점차로 이해의 속도가 빨라지다가 이제는 한 순식간에 광대한 이해의 영이 전두엽에 들어와 즉시 시종과, 좌우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매한자는 현재라는 이집트나 바벨의 정·경·종의 영에 안주하며, 이러한 신성한 창조세계의 기초를 무시합니다. 최상의 빛이며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여호와와 지식의 영의 내재하심과 그 거룩하신 영의 역동성을 통하여 인간 탄생 최고의 목표를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기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하려고 않습니다.

우매한 영에 사로 잡힌 자는 그가 체득한 어제까지의 경험과 오늘에서 느끼는 한계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여호와와 토라를 깊이 통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단하여 못한다는 결론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못한다" 그의 말이 부분적으로 맞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관점이 현재 입장에서만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열심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배우는 행위 그 자체만을 통해 사람 안에 잠재했던 지식의 영의 불꽃이 활짝 피어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정독하는 말씀의 구절과 그 뜻은 야곱의 사닥다리의 가로대가 되어, 이전에는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토라의 최정상의 지혜라는 한 "덩어리"에 더욱이 가까이 다가가도록 복의 문을 열어 줍니다. 탈무드(베라코스 40a)에서도 물리적 세계의 원리와 영적 세계의 원리 사이의 유사한 대조를 예문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빈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으며, 빈공간이 많을 수도 더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반대가 사실입니다: "가득 찬" 그릇, 즉 토라 지식으로 이미 준비된 "풍요로운 마음"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빈" 그릇, 즉 빛인 "토라가 없는 마음"은 아무것도 흡수하거나, 방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념은 출애굽기 15 장 26 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가 귀 기울이면 여호와 네 엘로힘 (=권능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니라." 탈무드는 반복되는 "듣고, 듣고, 듣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배우려는 [종자씨앗 같은] 수고한 땀의 노력이 다가올 한 미래에 있을 상황에 대하여 대비하도록 분별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호와와 토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듣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해의 영 곧 명철과 분별의 영이 함께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안 할 것이고, 결국에는 창조주께서 명하신 진리 말씀과 그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미드라쉬는 심오한 내면적인 성찰로 성경 주절의 말씀을 귀결짓습니다: "[여호와와 토라]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토라를 면밀히 정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은 각 영혼에게 있어서 두 가지 가능한 현실을 암시합니다. 여호와 토라의 각 층의 깨달음들은 공부에 대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쉽게 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력 (רצון nis;코악 라쥔)의 세계는 양자역학의 세계(Quantum Force)와 같은 한 짝입니다. 지속적인 겸비함이 바탕이 된, 성숙의 뿌리•성장의 풍성한 열매들을 소망하며, 진득하고 꾸준히 배우며 걷는 네웨쉬(영혼)들에게는, 여호와와 진리, 생명, 빛, 완전하신 토라는, 점차로 각인의 심령에 가까이 다가오시며, 그 사람의 마음과 말로 일치하여 현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토라 그 말씀 공부를 게을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토라는 여전히 멀리 서있게 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여호와와 토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진리인 토라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완고한 의지의 영이 그 육신과 심령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미드라쉬는 가르치시기를, 여호와와 토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배움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게으른 자들에게, 신명기의 말씀과는 달리, 토라가 그들에게는 마치 "하늘"이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낌없이 적극적으로 토라의 말씀을 알고자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의 장성한 지식에 이르도록 여호와 지식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따라서, 토라 말씀의 이해는 인간이 투입한 시간적 노력만으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말씀 그의 목소리에 기뻐 순종하기 위하여 진중히 듣고 배우는 임무에 성실함과 더 불어서 시간적으로 공동된 투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토라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긍극적인 뜻은,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숭고한 가치와, 영원토록 인애하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주신 신성한 최선•최상의 선물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1-2

“그런즉 안식할 때가 [여호와] 엘로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엘로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엘로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9-13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히브리서 122:3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렘 베타브(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22:11-13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엘로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샬롬